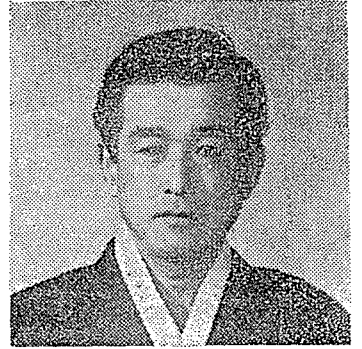


아메리카 圖書館의 周邊 (3)

金 世 翹



인디애나大學 圖書館學科와 圖書館

1965년 2월 22일 월요일 하오 5시10분에 「인디애나 포리스」 비행장에 내가 탄 비행기는 조용히 착륙했다.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리고 있다. 나는 지금 「인디애나」 대학이 있는 「브르밍턴」으로 가는 길이다. 「이리 노이」 대학이 있는 「산페인」에서 직접 「브르밍턴」까지 날으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이곳 「인디애나포리스」까지 비행기로 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브르밍턴」까지 가야 한다. 「인디애나포리스」 비행장에서 「다운 타운」까지 택시로 와 보니 「브르밍턴」으로 가는 버스는 내일 새벽 2시에 있다 한다. 호텔로 가기도 그렇고 해서 간단히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극장구경을 하면 그럭저럭 새벽 2시가 될 것 같다. 돈많은 사람은 그 동안이라도 호텔에 가서 자면 되겠지만 우리같은 처지이고 보면 호텔 값 8불이 아깝지 않을 수 없다. 8불이면 우리돈으로 계산하면 300대로 해서 2,400원 밖에 안되지만 미국에서의 8불이면 상당한 돈이다. 물가가 우리나라 보다 엄청나게 비싼 미국인데도 돈 가치가 그토록 높은 이유를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8불을 아꼈 겸 그동안 거리 구경도 하고 오래간만에 영화도 보고 싶었다. 극장이라야 서울의 이류정도의 것이었지만 관객이 의외로 적었다. 미국에서는 극장업이 일종의 「식크 비지네스」(병든 사업)라 하여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텔레비전의 보급 때문에 극장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식크 비지네스 중 또 하나는 철도사업이다. 이것도 국내 비행기의 보급과 편리하고 값싼 버스업이 놀랄만큼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인디애나대학이 있는 「브르밍턴」으로 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버스로 「그레이 하운드」버스라고 하는 호화로운 정기 여객 버스이다. 버스안에 화장실(물론 수세식)이 있고 더운물 찬물이 원하는 대로 나오고 혼자서 듣는 라디오의 리시이버가 자리마다 마련 되어 있고 우리나라 특별급행 2등보다도 더 좋았다. 그 크고 호화로운 버스가 기막히게 좋은 하이웨이(신차로)를 아무런 동요도 없이 70마일 내지 75마일의 날랜 속도로 달려간다. 미국의 그 넓은 천지를 이 하이웨이

가 거미줄 처럼 사통팔달(四通八達)하고 있고 그 위를 또한 그레이 하운드 버스가 쉴새 없이 달리고 있다. 「거대한 미국」의 모습을 이런데에서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었다.

저녁을 먹고 극장구경을 하고 나왔는데도 시간은 밤 11시반 밖에 안되었다. 버스가 떠날려면 아직도 2시간 반이나 기다려야 한다. 밖에는 추워서 걸어도닐 수도 없어서 나는 자그마한 뺨에 들어갔다. 뺨에 가서 짭짭 맥주나 한 두병. 마시노라면 시간이 되겠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국의 도시관과는 관계 없는 일이지만 나는 잠시 미국의 술집에 대해서 소개 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 라이프레이어리언들은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라이프레이어리언은 범교양적(汎敎養的)이라야 하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루네쌍즈적인 인간상이 우리 라이프레이어리언에게는 요구되기 때문이며 특히 페퍼러스 라이프레이어리언은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미국의 뺨에는 소위 뺨 걸이라는 여자가 없다. 술 먹으러 오는 남자들 에게 서어비스하는 여자라는 것이 미국 사회구조상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혼자서 술을 마시거나 여자친구와 같이 가는 수 밖에 없다. 또 여자들도 남자와 다름없이 자기들끼리 뺨에서 술을 마신다. 미국의 남녀평등의 개념이 뺨같은 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번 여자가 서어비스 하는 뺨에 간 일이 있다. 그것은 뉴욕에 있는 플레이 보이 클럽이라는 고급 뺨였다. 이 플레이 보이 클럽에는 아무나 들어 가는 곳이 아니고 회원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출입이 허용 되는 곳이다. 플레이 보이클럽 회원인 미국친구와 같이 갔었다. 이 회원이 되려면 돈도 많아야 하지만 사회적 지위도 상당한 이른바 V.I.P.라야 한다. 내부도 미국 담계 호화 찬란 하였고 그곳에 온 손님들도 신사 숙녀들 뿐이었다. 테이블 사이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뺨 걸은 모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옆에 서서 서어비스 하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당장에 퇴장을 당한다. 그저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나라에 와 있는 G.I.들은 우리 나라를 천국같이 알고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몇 해 안가서 그렇게 되리라고 막연히 믿어진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급속도로 아메리카나이츠(美國化)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갔는지 새벽 녘에 브르밍턴에 도착했다. 도착시간을 잘 모르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커서 미국 국내를 여행하면서도 자주 시간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리 예약된 대학안에 있는 유니온에 갔다. 브르밍턴은 순전히 대학도시이기 때문에 이 스튜던트 유니온이 제일 좋은 호텔이다. 전에도 말한바와 같이 외부사람이 이곳 브르밍턴을 찾아 오는 것은 99%까지 인디아나대학에 불 일이 있는 사람뿐이다. 그래서 대학안에 그렇게 크고 좋은 호텔이 있다. 우리 나라 대학들이 기업화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의 대학들은 우리 보다 몇 배 기업화 했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다음 날 인디아나대학 도서관학과로 찾아 갔다. 이 학교는 다른 대학의 경우와 달라서 Library School이 아니고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라 불러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대학원이 아니고 사범대학 안에 있는 한 학과였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Library School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형식상 도서관학과이기 때문에 사범대학 학재 밑에 학과장이 있는 셈이다. 이곳 학과장은 비도서자료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Miss Rubsvold이다. ALA에서 출판된 그의 저서「학교도서관의 시정각 자료」는 우리 나라에도 잘 소개된 유명한 책이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재 밑에 직결된 대학원으로서의 도서관학교였다. 돌아와서 1967년도 대학안내를 보니 Indiana University, Graduate Library School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제는 명실공히 Library School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찾아 갔을 때 즉 1965년에는 아직도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였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이 학교의 교과과정이나 교육방법이 사범교육이 위주가 되어 있었고 사서교사양성을 중요시 하는 것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런 학교도 미국에 하나 둘 있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학교는 나와는 보다 직선적인 관계가 있다. 그것은 내가 근무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장인 이봉순 교수의 출신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학교의 졸업생인 이봉순 교수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나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다. 그 친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나 나로서는 단순한 방문객 이상의 대우를 받았다.

이 학교에서 나를 안내하고 체류중 나의 신변을 보살펴 주는 사람은 미스터「고일」이라는 전임강사였다. 그는 이 학교 출신인 젊은 사람이었다. 한국 전쟁때 미군 7사단에 있었다면서 한국에서 온 나에게 각별한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의 직책은 Administrative Assistant and Instructor 즉 학장의 행정 보좌 및 전임강사였다.

그는 꽤 소탈한 사람이어서 처음 만나는 나를 10년 지기처럼 대해 주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상당히 공부를 잘 했나보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에 남아서 교수가 된 것을 보니……」
「아니야 나는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Good Student였나바, 선생말을 꼬박 꼬박 잘 듣고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지…… 말하자면 병신이었지……」 이렇게 대답하고는 혼자서 웃는 것이었다. 그러한 웃음은 미국에서는 대학교수가 그다지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브르밍턴을 떠날 무렵에 나는 그 사람 집에 저녁 초대를 받고 갔다. 아직 젊은 사람인데 그 집에는 어린 아이가 일곱이나 있었다. 아장 아장 기어다니는 갓난아기로 부터 4, 5세 가량 되는 어린 것들이 야단 법석을 하고 있다. 하도 이상해서

「무슨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았느냐?」

고 물었더니 그는 뜻 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의 부인이 부업으로「베이비 시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 시터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집의 아이를 맡아서 돌보아 주는 우리 나라의 유모 비슷한 것이다. 한국 여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많이 하는 알바이트이다. 이 젊은 교수는 아이가 둘이었다. 나머지 다섯은 남의 집 아이를 맡아 기르는 것이다. 물론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이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위 대학교수 부인이 유모 노릇을 해서 생계를 유지 하다니…… 아무리 미국은 돈의 나라라. 하지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머리를 무겁게 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미국사회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누구나 일을 한다. 또 무슨 일이건 성실하게 하는 한 그는 살 수 있고 또 사회인으로서 체모를 갖출 수가 있다. 미국에서 정말로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은 빈들 빈들 노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그 교수 부인(젊고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은 자기가 베이비 시터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조금도 창피해 한다거나 비굴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에 나는 감동했다. 그는 날마다 일곱명의 어린이들에게 시달리면서 남편 시중을 들고 집안 일을 처리하고 또 이렇게 손님 접대까지 하는 것이

다. 식모같은 것은 있을리 없다. 근면한 미국 사람들, 신이 이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나는 물었다.

「너는 부인을 저렇게 혹사하고도 남자대장부로서 미안하다거나 부끄럽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는

「우리는 결혼할 때 같이 벌어서 살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대답하곤 별로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 모양이었다. 미국은 이상한 나라다.

인디애나대학 도서관학과는 몇 해 전부터 도서관학 박사과정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는 석사과정 뿐이지만 1967년도 부터는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선 지명된 학자를 초빙해야 하고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미국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운 일이다. 어느 나라의 경우 처럼 우선 과를 설치해 놓고 교수를 다러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참고로 그 학교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을 소개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인디애나대학 도서관학교의 이 새로운 교과과정은 거의 완벽한 것이고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점이 많다고 믿는다.

도서관학교 교과과정

1. 참고자료와 참고봉사 (2학점)
2. 자료선택과 도서관자료의 이용 (3학점)
3. 목록과 분류 (3학점)
4. 도서관학 세미나 (1학점)
5. 책과 도서관사 (3학점)
6. 도서관봉사의 기본문제 (3학점)
7. 미국 도서관사 (3학점)
8. 조사연구도서관과 실습 (2학점)
9. 인문과학 문헌 (4학점)
10.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문헌 (5학점)
11. 과학기술 서지 (2학점)
12. 정부간행물 (3학점)
1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자료 (3학점)
14. 교과과정 자료 (3학점)
15. 정보과학과 도서관적 배경 (2학점)
16. 정보과학 개론 (3학점)
17. 도서관 조직과 관리 (3학점)
18. 현대적 학교도서관 (2학점)
19.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봉사 (3학점)
20. 도서관관리와 정보센터 (4학점)
21. 고급분류와 목록 (3학점)
22. 기계적 봉사 (3학점)
23. 도서관 봉사와 조사연구 (2학점)

24. 사서의 워크샵
25. 도서관의 실제적 훈련
26. 석사논문 (5학점)
27. 도서관의 국제관계 (3학점)
28. 정보 조직 (3학점)
29. 정보 검색 (4학점)
30. 박사과정 세미나 (1학점)
31. 정보 과학 세미나 (2학점)
32. 정보 조직의 실제 (4학점)
33. 학교도서관 세미나 (3학점)
34. 대학도서관 세미나 (3학점)
35. 특수도서관 세미나 (3학점)
36. 공공도서관 세미나 (3학점)
37. 박사학위 논문

이상 37개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이것을 다 이수할 필요는 없다.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학점을 마치면 졸업이 된다. 이 다양하고 풍부한 교과과정의 편성과 우리 나라의 그것을 비교 할 때 우리의 교과과정 편성이 얼마나 영성한 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전 교과과정 속에 도큐멘테이션에 관한 것이 반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도서관학교에서 도큐멘테이션이 크게 클로스 업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실증이다. 이것은 비단 인디애나대학의 경우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도서관학교의 교과과정이 도큐멘테이션을 향하여 크게 변모하고 있는 구체적인 양상이라 하겠다.

인디애나대학 도서관학교의 교과과정에는 또 하나의 특색이 있다. 그것은 학교도서관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학장인 Rufsvold 여사가 학교 도서관 전문가라는 것과 또 이 도서관학교는 다른 데와 달라 사범대학 소속으로 발족했다는 데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사실상 인디애나대학 도서관학교는 사범대학 건물(education building) 속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다른 대학에서는 대개가 도서관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 학교의 교수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임교수가 11명인데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3명이고 나머지는 석사이며 교수들의 출신학교를 보면 인디애나대학이 4명, 시카고대학이 2명, 러츠가즈대학이 2명, 미시건대학이 1명, 일리노이대학이 1명, 조지 피바디대학이 1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도 일류대학 출신이라야 대학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 강사가 7명이 있다

인디애나대학 도서관학교를 나온 한국사람은 앞에서 말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이봉순 교수와 또 아직도 미국에 체류중인 김중환씨(그는 아마도 한국사람으로서 최초의 도서관학 박사일 것이다) 또 역시 미국에 있는 최정호씨 등이며 내가 갔을 때에는 미쓰 김과 미세스 김 두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미쓰 김은 고려대학 영문과 출신으로 미국에 와서 도서관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미세스 김은 미국에서 다른 분야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도서관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한국학생들이 다른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계열의 공부를 해도 미국에서 취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취직이 100% 보장되는 도서관학을 공부 하게 된다. 나는 미국에서 한국학생들의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았다. 미세스 김도 그런 경우의 하나이다. 나는 어느 날 미세스 김 집에 저녁 초대받았던 일이 있다. 갓난 아이 하나 있는 세 식구인데 그들이 사는 집이 「트레일러 하우스」라는 것인데 조립식 집이다 집안에 자동차 바퀴가 달려 있다. 이것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름에는 추운 북쪽으로 겨울에는 따스한 남쪽으로 집이 이동하게 되어 있다. 집시의 집이라고나 할까? 물론 이것도 셋집이다. 미국에서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미국사람들은 대개 아파트 생활을 하며 죽을 때에도 아파트에서 죽는 것이 일수이고 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셋집에서 사는 것이 보통이다. 자기 집을 산다고 해도 월부 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0년이나 그 월부돈을 갚고 완전히 자기 집이 될 때는 이미 죽는 날이 가까울 때다. 미국에서 상당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자기 집을 가지기가 어렵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은 결코 살기 좋은 사회라 하기 어렵다.

이제 나는 인디애나대학의 도서관에 대하여 이야기 해야 하겠다. 현재 있는 대학도서관은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10년전 부터 새 도서관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은 자금도 마련되고 설제도 완성되어 착공할 찰라에 있었다. 지금 있는 것은 대학도서관(Research Library)과 Under graduate Library 와 그리고 회구서를 모은 「존 라이리」 도서관 이렇게 셋이 있다. 존 라이리 도서관에는 특히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자료가 많이 수집되어 있었다. 링컨과 인디애나주와의 관계를 볼 때 수궁이 가는 일이다. 새로 계획하는 도서관은 방대한 것으로서 그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미국에서는 아마도 제일 큰 대학도서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건물이 크다는 것 외에 그 시설이 또한 대단하다. 그중에서도 IBM의 도입 문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IBM 357을 도서관에 도입하면 대출업무에

서 북 카아드 배열이 기계적으로 되어 시간적으로 엄청난 절약이 가능하고 또한 그것을 정확히 할 수 있다. Over due(대출 기한 완료) File을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부재도서(不在圖書)를 이용자에게 기계적으로 알릴 수 있고 도서관에서 요구되는 많은 통계자료가 기계적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그 밖에 Curriculum Reserve나 Personal Reserve의 처리도 쉽게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도서관 업무 기계화의 최선단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잡무에서 해방된 사서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 봉사의 이상적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IBM 357을 도서관에 도입하는 데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 기계 도입에 필요한 돈이 40,000弗이 든다. (사우던 일리노이 대학도서관의 경우)

또 IBM 357을 실제로 사용하자면 도서관 장서가 적어도 70만권이 넘어야 하고 도서관 예산이 100만불이 넘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Punched Students Identification Card를 소지해야 하고 학생 뱃지가 있어야 하고 Master Book Card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해결하는데에도 많은 돈과 거기에 따르는 복잡한 사무 처리가 필요하다. IBM 357 도입 문제는 복잡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그 소개에만 그치겠다. 미국의 도서관들은 이 IBM 357의 도입 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도 그런 많은 돈을 소비하고 또 그렇게 복잡한 사무처리를 해서라도 IBM을 도입할 것인가 또는 지금은 시기 상조가 아닌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토의하고 있었다.

돌아와서 들으니 인디애나대학에서도 IBM 357 도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역시 대세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또한 주목할 일은 인디애나대학의 시청각교육은 미국에서도 유명한데 새로운 도서관이 이 시청각센터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도서관 업무의 다면화라는 문제는 우리도 고려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인디애나대학 도서관에서 나는 처음으로 「세린 레이블러」라는 타이프 라이터를 보았다. 이것은 책의 스파인에다가 「롤 넘버」를 쓸 때 과거에는 포스터칼러를 펜이나 붓으로 쓰거나 일렉트릭 스타일러스(전기 펜)로 쓰고 있었는데 이 세린 레이블러는 타이프 라이터로 롤 넘버를 그대로 찍어서 그것은 스파인에 기계적으로 부치면 된다. 보기도 좋고 또한 과거의 어떤 방법보다도 빠르게 일이 처리되고 오래 간다는 것이다.

(9면에 繼續)

In view of the rapidly expanding volume of literature in the subject areas covered in Section IV: Medical Microbiology, Immunology and Serology, it has been decided that as of July 1967 the pertinent material will be divided between the following two new Abstracting Sections

Section XXVI: Immunology, Serology and Transplantation
Subscribers to Section IV will receive Section XXVI without extra charge during 1967.

2) Abstracts of Soviet Medicine 및 Abstracts of Japanese Medicine 은 모두 Excerpta Medica社에서 刊行되었고, "Excerpta Medica"의 特別 Section으로 Section Number를 부치지 않고 出版되었던 것으로서, 前者는 1957년부터 1961년까지 基礎와 臨床으로 나누었고, 後者는 1961년부터 1962년에 걸쳐서 刊行되었다. 그러나 其後는 모두 Excerpta Medica의 各 Section에 正式으로 收錄되었다.

3) 獨逸의 抄錄誌

第2次大戰前의 抄錄誌는 獨逸의 Zentralbratt가 代表의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었으나, 戰後에는 Excerpta Medica나 其他의 抄錄誌가 前者의 것에 比하던 달라진 感이 있다. 그러나 最近 獨逸의 抄錄誌도 漸次的으로 復刊되어 再次 文獻探索의 Tool로서 役割을 하게 되었다.

4) International Abstracts of Surgery

抄錄誌로서는 獨特한 發行形態를 가지고 있다. 即 Surgery Gynecology and Obstetrics의 每號 後篇에 合綴되어 있으므로, 製本時는 前篇인 SGO篇과 分離시켜 獨立된 抄錄으로서 取扱한다.

5) 其他 外國의 抄錄誌

Chemical Abstracts, Biological Abstracts, Nutrition Abstracts, Analytical Abstracts 등이 있다.

(17面에서 繼續)

도서관 업무의 모든 부분이 척척 기계화 해가고 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사서들의 시간과 정력을 이용자에 대한 봉사에 집중적으로 치중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사무에 모든 시간을 뺏기고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자칫하면 이차적으로 되고 있는 이 실정에서 빨리 탈피해야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도서관에 와서 느낀 일은 사서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장은 교수대우를 받고 사서장은 부교수, 각 과의

Ⅲ. 單行本探索의

單行本에 關한 2次文獻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顯하는 主題에 關하여 適切한 單行本을 探索하는 일은 大端히 困難할 境遇가 많다.

1) Index Catalogue (1880—1961)

이 IC는 A부터 Z까지를 하나의 시리즈로서 著者名과 主題名으로 探索할 수 있다. Z로서 끝나면 反復해서 A부터 다시 始作이 되나 時間的으로 많이 遲延이 되므로 第4시리즈의 中間에서 中止되었으며, 여기에 未收錄된 나머지 資料들은 第5시리즈로서 刊行되었다.

2) Armed Forces Medical Library Catalog

美國國立醫學圖書館(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發行하며, 當年에 發行된 많은 醫書가 收錄되어 있으므로 探索하는데 大端히 有用한 것이다.

3) Quarterly Cumulative Index Medicus(QCIM)

雜誌論文의 索引誌이며 各卷의 前篇部分은 前年後半篇頭부터 그해(當年)에 걸쳐서 出版된 主要醫書의 目錄을 收錄하였고 또 原索引의 體制는 著者名과 分類別로 되어 있다.

4) 其 他

"Scientific, Medical, and Technical Books; Published in U.S.A.," "Books in Print" 등이 있다. 美國에서 出版된 圖書에 對해서는 比較的 資料가 많으므로 調査하기가 容易하나 其外의 나라에서 發行된 圖書나 雜誌에 對해서는 調査하기 困難할 때가 많다.

以上과 같은 各種 道具(tool)를 利用해서 探索한 結果 찾아낸 文獻이 自己의 圖書館에 없을 境遇에는 綜合目錄을 活用해서 他 圖書館의 所藏如何를 確認한 後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도록 한다.

文獻探索은 其 要求된 文獻을 短時間內에 迅速, 正確하게 把握하여 回答을 하여야 하므로, 1次文獻의 內容의, 書誌的 data에 對한 知識 그리고 2次文獻에 對한 充分한 知識과 訓練이 必要하다.

주임은 조교수, 사서들도 전임강사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직원도 다른 학교 사무직원엔 불과하여 그 대우가 교수직에 비해 형편없는 것이 실정이다. 캐나다 같은데서는 대학도서관 사서를 교수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입법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대학도서관의 사명과 본질을 생각 할 때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인디아나대학 도서관 관장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를 자랑삼아 말하고 있었다.